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심재훈**

국문초록

날개 달린 상상의 동물인 그리핀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했다. 서아시아 전역과 이집트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성행하며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고, 중앙유라시아의 오아시스와 초원지대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전해졌다. 중국에 최초로 나타난 그리핀, 즉 有翼神獸에 대한 기존 학계의 인식은 기원전 6세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보다 이른 기원전 12세기까지 소급되는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중국에도 상 후기 이래 날개 달린 동물 혹은 인간 모티프가 존재했음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한편으로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 자생적으로 고안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최초로 날개 달린 동물(인간)이 출현하는 시점에 이미 서아시아를 비롯한 선진 문명 지역들에서 그리핀이 2000년 이상 보편적으로 유행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삼성퇴에서 날개 달린 동물과 함께 출현하는 이른바 神樹 역시 당시 서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한 “생명의 나무”와 흡사하다. 미지의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성행해온 그리핀과 관련된 종교적 관념이 그 아이콘과 함께 긴 중계 과정을 거치며 成都 평원까지 희미하게라도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최초의 청동 문화인 기원전 2000년경 甘肅省의 齊家文化和 남시베리아의 우랄산맥 서쪽 세이마-투르비노(Seima-Turbino) 지역 금속 문화와의 고고학적 연관성 역시 이른 시기 동서문명 교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그리핀, 유익신수(有翼神獸), 생명의 나무, 신수(神樹), 동서문명 교류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더 이른 사례들 |
| II. 중앙 유라시아로 그리핀의 확산 | V. 시론적 해석 |
| III. 중국에 나타난 유익신수 | |

* 이 연구는 202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js527@dankook.ac.kr

I. 들어가며

기원전 3500년경부터 본격화된 청동이라는 새로운 합금기술의 발명이 인류의 광범위한 교역을 촉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본격적 시발점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국가들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늦은 기원전 1700년경부터 중국 학계에서 최초의 왕조 국가인 夏의 도성으로 보고 있는 二里頭 지역을 중심으로 청동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많이 늦어도 禮器 위주의 중국 청동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청동 문명을 이루었다.

중국 청동기의 기원에 대해 서양 학자들의 서방 전래설과 중국 학자들의 토착설이 맞서다가 현재는 중국 학계에서도 서방 전래설이 더 큰 지위를 얻고 있다.¹⁾ 중국 청동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北京大學 朱鳳瀚은 2009년 출간한 『中國青銅器綜論』(上海古籍出版社)에서 중국 최초의 청동기로서 실크로드에 해당하는 甘肅省과 青海省의 청동기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중원에 끼친 영향이나 서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중원지역 청동기 제련과 주조기술의 서북방 전래를 인정하며 서방 전래설을 수용하고 있다.²⁾

이 글은 서아시아 고대문명 東進의 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有翼神獸라고 부르는 날개 달린 상상의 동물 그리핀(Griffin)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신화적 상상의 동물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리핀 이외에도 스피нк스(Sphinx)와 페가수스(Pegasus), 키메라(Chimera), 라마수(Lamassu), 유니콘(Unicorn)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유익신수와 근동의 그리핀을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두 모티프 모두에 나타나는 날개에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양 지역에서 날개 달린 동물이나 인간과 동시에 출현한 이른바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및 “神樹”와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신석기시대까지 동굴이나 바위에 묘사된 동물은 수렵이나 목축 대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다. 인류 정신문화의 발전과 함께했을 관념적, 공상의 동물인 그리핀은 문자를 발명한 최초의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3500년경 출현했다. 맹수인 사자와 독수리를 기본으로 소나 뱀, 전갈, 심지어 인간 등 동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한 날개 달린 그리핀은 청동기시대의 상징 표식으로 서아시아 전역과 이집트에서 다양하게 발전했다. 서쪽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전파되어 그리스와 로마에서 성행하며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고, 중앙유라시아의 오아시스와 초원지대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전해졌다.³⁾

그리핀이라는 용어는 고대 희랍어의 gryps에 그 연원이 있으므로, 실상 그 원래 명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나 로마에서 보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중세에는 강력하고 신비적인 동물로 인식되었지만, 서아시아에서의 원초적 의미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⁴⁾ 하야시 도시오는 신을 수호하는

1) 류리, 천상찬(저), 김정열(역),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88~395, 404~405쪽.

2) 朱鳳瀚, 「漢代以前的北方與歐亞草原」, “東北亞青銅器比較研究” 國際學術研討會, 日本 岩手大學, 2019년 12월 14~16일(張海 등, 「東北亞青銅器比較研究” 國際學術研討會紀要」,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新聞 2020년 1월 14일 참조[http://www.hnswkwgyjy.cn/NewsView.php?News_ID=920] 2020년 11월 15일 접속).

3)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聖獸からみた文化交流』, 東京, 雄山閣, 2006, 7~8쪽.

동물(守護獸)나 운송 수단 혹은 신에 대항하는 맞수로서 역할 때문에 강하고 독성을 지니는 동물이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또한 그리핀을 대체로 사자 머리 유형과 독수리(새) 머리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⁵⁾

이 글에서 필자는 위의 마지막 동쪽으로는 확산에 치중하며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한 그리핀이 이란과 중앙아시아로 전해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중국에 나타난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 검토하여 그 연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해석을 제시하며 고대 동서 문명 교류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볼 것이다.

II. 중앙 유라시아로 그리핀의 확산⁶⁾

고대 초원의 유목민들이 가장 선호한 동물 주제는 사슴과 그리핀이었다. 사슴 모티프는 초원에서 비롯하여 기원전 9세기경 스키타이시대 초기부터 등장했지만, 그리핀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도시오가 동아시아와의 연결 고리로 주목한 알타이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550-330 BCE) 유형과 그리스 고전 유형의 그리핀 발견되었다.

하야시는 아케메네스 표준 그리핀으로 티그리강 동쪽으로 250km 떨어진 왕조의 수도였던 수사(Susa)의 벽돌 부조를 들고 있다(그림 1). 그 특징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 양상에 주목한다: (1) 사자 머리, (2) 양 같이 휘어진 뿔 (3) 말 같이 서 있는 귀, (4) 목 뒤의 짧은 갈기, (5) 귀에서 목까지의 수염, (6) 접어 올린 날개, (7) 배의 머리칼, (8) 엉덩이의 활 표식, (9) 독수리 뒷다리. 이들 중 일부는 신아시리아(934~609 BCE)와 신바빌로니아(626~539 BCE)의 그리핀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그림 1〉 사자 그리핀, 기원전 5세기 수사의 부조



〈그림 2〉 독수리 그리핀, 올림피아 출토 청동판

4) <https://en.wikipedia.org/wiki/Griffin>(2020년 11월 17일 접속).

5)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9쪽.

6) 대체로 林俊雄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Toshio Hayashi, "Griffin Motif: From the West to East Asia via The Altai," *Parthica* 14, 2012, pp. 49~62 참조.

대략 기원전 8~6세기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독수리 그리핀이 출현한다. 기원전 630~620년 사이에 올림피아에서 신에게 헌납된 청동판에 새겨진 독수리 그리핀은 목에서 덩굴이 말려 내려가고, 손잡이와 귀가 머리 위에 서 있으며, 귀 아래에 혹이 있고, 부리가 강조되었으며, 날개가 앞발에서 접혀 올라간다(그림 2). 그 기원이 불명확하지만 오리엔트화된 그리핀으로 추정되며 북 코카서스의 초기 스키타이 미술에 전수되었을 것으로 본다. 기원전 5세기 그리핀은 날개가 자연스러워지고 덩굴이 사라지는 표준 그리스 고전 유형으로 발전한다. 이때 그리스에서는 아케메네스 유형이 출현하지만,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그리스 고전 그리핀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크(Pazyryk) 쿠르간(Kurgran)에서 발견된 두 유형의 그리핀을 살펴보자.⁷⁾ 파지리크 쿠르간 2호묘에서 발견된 동 장식에 찍힌 사자 그리핀(그림 3)과 금박이 입혀진 나무 목걸이(torque)의 사자 그리핀(그림 4), 골재 말 재갈 장식에 묘사된 물새를 공격하는 사자 그리핀 등은 아케메네스 유형이다. 아르 알라하(Ak-Alakha) 3유적 1호 고분에서 출토된 펠트제 말안장 뒷개에 아틀리케 장식식으로 새겨진 그리핀(그림 5)에서는 표준 아케메네스 양식뿐만 아니라 아케메네스 그리핀에는 나타나지 않는 엉덩이 부위의 “점과 활 두 개” 표식과 꼬리 끝부분의 잎 모양 장식도 나타난다.⁸⁾ 투엑타(Tuekta) 쿠르간의 1호묘(그림 6)와 베렐(Berel) 쿠르간의 11호묘에서 출토된 독수리 그리핀도 목 뒤의 짧은 갈기와 말려 올라간 날개를 통해서 아케메네스 양식임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파지리크 지역에서 발견된 아케메네스 유형 그리핀을 비롯한 다른 미술 모티프가 중앙아시아와天山 지역을 거쳐 알타이에 도달했을 것으로 본다.



〈그림 3〉 사자 그리핀,
파지리크 쿠르간,
기원전 5~4세기



〈그림 4〉 사자 그리핀, 파지리크 쿠르간, 기원전 5~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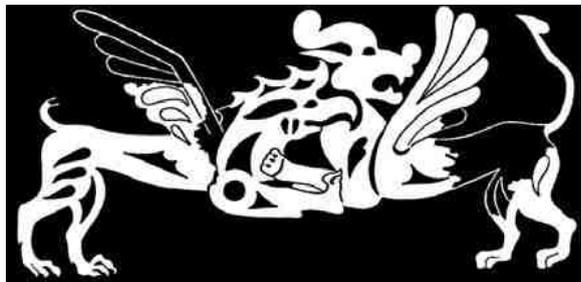
7) 국내에도 “김재윤의 고고학 강좌”에 파지리크 쿠르간 유적에서 발견된 그리핀이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다: “2500년 전 시베리아의 말 마스크와 살아있는 그리핀” 2020년 3월 21일(<https://eastsearoad.tistory.com/462?category=850190>); “2500년 전 파지릭 유적의 말 등에 그려진 그리핀” 2020년 3월 23일(<https://eastsearoad.tistory.com/464?category=850190>); “2500년 전, 시베리아 알타이 산의 그리핀 달린 남성의 코로나” 2020년 3월 25일(<https://eastsearoad.tistory.com/466?category=850190>); “알타이의 2500년 전 뿔 달린 그리핀” 2020년 3월 28일(<https://eastsearoad.tistory.com/469?category=850190>)(2020년 11월 10일 접속).

8) 이 고분의 안장 뒷개에 새겨진 그리핀 장식에 대해서는 N.V. 플로스막(저), 강인옥(역), 『알타이 초원의 기마인: 25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얼음공주와 미라전사들』, 주류성, 2016, 308~314쪽 참조.



〈그림 5〉 아크 알라하 1호 쿠르간의 펠트 아플리케 그리핀 기원전 5~4세기 〈그림 6〉 독수리 그리핀, 투엑타 쿠르간, 기원전 6~5세기

파지리크 쿠르간 1호묘에서 발견된 염소를 공격하는 독수리 그리핀(그림 7)은 엉덩이 부위에 아케메네스 양식인 “점과 활, 삼각형” 마크가 나타나지만, 그리스 고전 그리핀 양식이다. 2호묘의 펠트 아플리케 독수리 그리핀은 두 지역 양식 모두 지니고 있고, 파지리크 쿠르간 1호묘에서 나온 실루엣 가죽 자수에 나타나는 독수리 그리핀이 사자 그리핀을 공격하는 형상도 마찬가지이다(그림 8). 그리스 양식이 이란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알타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하야시는 그리스의 고전 그리핀이 페르시아 지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흑해 연안 북쪽의 폰토스(Pontic) 지역으로부터 유라시아 초원을 거쳐 알타이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나오는 루트로 폰토스의 스키타이 장축이 파지리크에서 나타남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한다.



〈그림 7〉 독수리 그리핀, 파지리크 쿠르간, 기원전 5~4세기

〈그림 8〉 사자 그리핀을 공격하는 독수리 그리핀, 파지리크 쿠르간, 기원전 5~4세기

그렇다면 꽤 많은 그리핀 형상이 출토된 파지리크 쿠르간 유적의 연대는 어떻게 될까?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하야시는 귀티 아잘페이(Guitty Azarpay)의 5~4세기 설을 수용한다. 이 유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 고전 그리핀이 기원전 5~4세기 양식이고, 더욱이 아케메네스 유형 그리

핀이 그리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그 제국 붕괴 시점인 기원전 330년 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연대를 가장 올려잡아도 기원전 6세기 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야시는 기원전 5~4세기경 알타이에 도달한 아케메네스와 그리스 그리핀이 그 지역 유목민들에 의해 변형을 거치며, 독수리 그리핀이 초원 루트를 통해 기원전 4세기경 몽골과 중국 북부에 먼저 도달했을 것으로 본다. 사자 그리핀은 그보다 늦게 기원전 1세기경 흉노의 선우를 통해 중국에 전래되어 鎮墓獸로 발전했으리라 결론짓는다. 알타이 넘어 동쪽으로 그리핀이나 날개 달린 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1958년 루덴코(Rudenko)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했지만, 현재까지 중국에서 확인된 이른바 有翼神獸는 그 양상이 하야시의 주장보다 훨씬 복잡하다. 더욱이 최근 알타이의 투바 지역에서 발굴된 아르잔 2호 고분에서도 그리핀 모티프가 발견되었는데, 이 고분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 중반 정도로 추정된다.⁹⁾

Ⅲ. 중국에 나타난 유익신수

중국학계에서도 1930년대 이래 유익신수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지만,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 이해하는 자생 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4년부터 河北省 平山縣 三汲鄉에서 이루어진 中山王陵의 발굴이 이러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白狄의 국가로 알려진 중산왕 착의 묘에서 초원 양식이 뚜렷한 유물들과 함께 그리핀의 亞種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익신수 형상이 담긴 청동기 4점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중산국이 그 지역에서 존속한 시점이 대체로 기원전 388~296년이고 착왕이 308년 사망했기 때문에, 이 기물들은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된다. 목제 병풍이나 가구의 지지대였을 금은이 상감된 한 쌍의 날개 달린 동물은 호랑이와 파충류, 새 등 동물이 합성된 것이다(그림 9). 로타 팔켄하우젠은 기원전 5세기경 갑자기 중국 예술의 흔한 주제로 등장하



〈그림 9〉 중산왕묘 출토 유익신수

는 이러한 형상이 서아시아에서 유래하여 이란 및 스키타이를 거쳐 중국에 도달하여 辟邪의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¹⁰⁾ 하야시 도시오는 이 기물 머리 윗부분의 구부러진 뿔이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알타이의 파지리크로 전해진 사자 그리핀의 특징과 유사함에 주목한다.¹¹⁾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李學勤이

9) 콘스탄틴 추구노프, 「투바 아르잔 2호 고분 발굴 성과」, 『중앙아시아연구』 21.2, 2016, 137~158쪽.

10) 로타 본 팔켄하우젠(지), 심재훈(역),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2011, 331~340쪽.

11)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214~215쪽. 이 주장은 위의 영문 논문에서 기원전 1세기경 흉노의 선우를 통해 사자 그리핀이 중국에 전해졌으리라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다.

이러한 유형의 모티프가 서아시아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과 함께 인식 전환을 촉구했고,¹²⁾ 李霧은 199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유익신수를 거의 망라해서 분석한 뛰어난 연구를 내놓았다.¹³⁾ 이 장은 대체로 李霧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

李霧이 주목한 중국에서 가장 이른 유익신수는 新鄭 李家樓의 鄭國大墓에서 출토된 춘추 중기(기원전 6세기 전후)의 꼭대기에 학이 서 있는 立鶴方壺에 나타난다(그림 10). 기물 아래의 네 모퉁이에 기어가는 동물이 장식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휘어진 날개 두 개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그림 11). 그 동물의 고개를 뒤로 젖힌 모습이나 조형상 180도 회전이 가능한 점에서 초원 양식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날개가 우연한 예술적 변형인지 외래의 예술 주제인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식은 150년 이후 정도로 추정되는 중산왕묘 출토 方壺의 네 귀퉁이 장식과도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그림 12).



〈그림 10〉 立鶴方壺



〈그림 11〉 날개 달린 장식



〈그림 12〉 中山王方壺

또 다른 춘추시대의 기물은 1930년대 河南省 新鄉 부근의 古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泉屋博古館 소장 청동기 장식이다(그림 13). 원래 청동 호의 뚜껑 위 손잡이 장식으로 추정되는 날개 달린 동물 네 점은 사자나 호랑이 유형의 동물 머리를 지닌다. 입 양쪽으로 날개가 나와 있고 머리 부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달려 있다. 몸통에도 S자 모양 날개 두 개가 뾰족하게 뒤를 향하고 있다. 이 기물의 문양이 후술할 侯馬의 晉國 청동기 공방 유적에서 발견된 청동 거푸집의 문양과 유사하므로, 그 연대를 춘추 후기로 추정한다. 전국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자 머리를 한 날개 달린 동물이 여기서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李霧은 또한 전국시대 초기 기물로 甘肅省 涇川에서 출토된 기물의 몸통 전체에 날개가 장식된 달린 동물 모양인 “翼獸形提梁盃”를 들고 있는데(그림 14) 유사한 기물이 北京의 故宮博物院과 廣東省博物館, 上海博物館에도 소장되어 있다. 上海博物館 소장품이 山西省 太原 金勝村에서 도굴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李霧

12) 李學勤, 『比較考古學隨筆』, 香港, 中華書局, 1991, 117~125쪽.

13) 李霧, 「論中國的有翼神獸」, 『入山與出塞』, 北京, 文物出版社, 2004, 87~135쪽; 「再論中國的有翼神獸」, 『入山與出塞』, 136~144쪽.

은 이것들이 모두 三晉 지역에서 주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上海博物館 측에서는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집한 翼獸盃라고 명명된 그 기물의 風格이 山西省에서 출토된 것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 <그림 14>의 甘肅省 출토품과 유사하여, 오히려 秦의 기물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¹⁴⁾



<그림 13> 泉屋博古館 소장 청동기 장식



<그림 14> 甘肅省 涇川 출토 翼獸形提梁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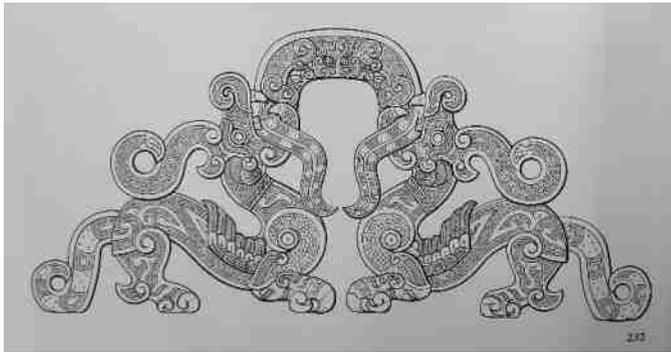
<그림 15> 臺北 故宮博物院 소장 鳥首獸尊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기물은 臺北 故宮博物院 소장 鳥首獸尊이라는 청동기이다(그림 15). 새 머리 모양 기물로 몸통 양쪽에 S형 모양 날개가 음각으로 평면 장식되어 있다. 연대는 전국시대 초기로 추정되며 역시 三晉 계통의 유물로 보고 있다. 몸통의 S형 날개 장식이 侯馬 청동기 공방 유적에서 발견된 “鳥形模”나 “虎形模”와 유사하다. 李霧은 이 기물 어깨와 허리 부분의 소용돌이 문양이 파지리크에서 출토된 안장 깔개의 도안과 비슷한 점에 주목한다. 새의 부리 부분이 파지리크에서 발견된 독수리의 부리와의 유사해 보인다.

李霧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이 鳥首獸尊을 三晉 지역에서 산출되는 기물로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춘추시대 후반 기원전 585년에서 403년까지 쫓의 수도 新田이 있었던 오늘날의 侯馬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주조 공장 유적에서도 유익신수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특히 청동기의 장식용 진흙 모델과 거푸집에서 그리핀 요소가

14) 陳佩芬, 『夏商周青銅器研究: 上海博物館藏品』 東周篇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450~451쪽.

뚜렷한 날개 달린 동물 모티프가 나타난다. 종의 길이 부분에 해당하는 장식 하부의 날개 달린 동물 한 쌍은 그 머리가 새보다는 용에 가까워 보이지만 눈 옆으로 나타나는 뿔과 날개에서 초원 양식이 엿보인다(그림 16). 호랑이 모양 거푸집에도 작은 뿔과 함께 날개가 달려 있다(그림 17). 통상 삼차원적으로 나타나는 독수리 모양 새에도 뿔이 달려 있는데, 이 역시 남북조시대까지 중국에 알려지지 않은 양식으로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원뿔형 은제 술잔인 리톤(rhyton)을 연상시킨다고 한다.¹⁵⁾



〈그림 16〉 侯馬 거푸집(그림)



〈그림 17〉 侯馬 거푸집(그림)

이 밖에도, 李零은 湖北省 隨州의 曾侯乙墓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초기 編磬 걸이의 유익신수와 같은 묘에서 출토된 새와 동물이 합성된 “鹿角立鶴”이라 부르는 북 받침대, 河南省 浙川 徐家嶺 楚墓에서 출토된 터키석이 상감된 神獸 기물 받침대, 앞에서 언급한 중산왕묘에서 출토된 유익신수, 河南省 輝縣 琉璃閣 전국시대 魏國墓에서 출토된 청동 鑿의 鳥首翼獸 문양, 四川省 巴蜀 지역의 銅戈와 銅劍에 새겨진 사자와 호랑이 유형 유익신수, 雲南省 晉寧 石寨山 7호묘에서 출토된 翼虎 帶鉤 등 전국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핀 양식을 차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는 특히 四川의 銅戈가 기형은 파촉식이지만 문양은 오르도스식임에 주목하며 몽골 서부에서 雲南 고원에 이르는 남북의 전파 루트를 상정한다. 그가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중국 동북의 大興安嶺에서 雲南 서북부의 고원에까지 이르는 변경지대가 생태환경이 비슷하여 신석기시대 이래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다는 童恩正의 이른바 “半月形文化傳播帶” 이론을 상기시킨다.¹⁶⁾

전한 시대에는 청동기와 도기, 옥기, 금은기 등에 날개 달린 사자와 호랑이 양 등 더욱 다양한 유익신수가 나타난다. 후한 시대에 날개 달린 사자가 정형화되기 시작하여 짝을 이루는 天祿과 단일한 辟邪라는 고정된 형상이 출현한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天祿과 辟邪가 청동기나 도기뿐만 아니라 석각으로도 만들어지며 보편화되었다. 화성석에도 다양한 유형의 유익신수가 묘사되었음은 물론이다.

15) Institute of Archaeology of Shanxi Province, *Art of the Houma Founda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 84.

16) 童恩正, 「試論我國從東北至西南的邊地半月形文化傳播帶」, 『中國西南民族考古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990, 252~272쪽.

李霧은 중국 최초로 문헌에 명시된 유익신수인 麒麟에도 주목하는데 『春秋』 哀公 14년(481년 BC) “西狩獲麟”이라는 기록과 『詩經』 「周南」 ‘麟之趾’에는 모두 麒麟이 아닌 麟으로만 나타난다. 전국시대 문헌에서야 麒麟이 봉황과 함께 상서로운 동물로 나타난다고 보는 그는 소리가 각각 群母之部(giə)에 속하는 ‘麒’字와 來母眞部(lien)에 속하는 ‘麟’字가 griffin의 음차일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한대 이후의 문헌에 나타나는 天祿과 辟邪도 西域으로부터 유입된 외래의 산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기원전 6세기경부터 서역이나 초원과 통하는 甘肅省과 陝西省, 山西省, 河北省 북부 등 중국에 출현하는 유익신수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초원의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하야시 도시오와 마찬가지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그리핀이라는 예술이 흑해 북안을 거쳐 남시베리아와 알타이를 거점으로 발전하다, 중국으로는 新疆을 통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내몽고와 동북을 통해 유라시아 초원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李霧 역시 중국에 나타나는 그리핀 요소가 알타이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그리핀과 동 시기이거나 조금 늦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상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그리핀의 연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하야시보다 빠른 6세기 설을 따르는 듯한데, 문제는 중국에 6세기보다 이른 시기에도 유익신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IV. 더 이른 사례들

앞장에서 살펴본 유익신수 중 다수가三晉 지역인 오늘날의 山西省에서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내몽고의 오르도스 지역과 연결되는 山西省의 서북부와 陝西省 동북부 고원 지대에는 상 후기(대략 기원전 13~11세기)에 李家崖 문화로 명명된 商式과 북방식이 혼합된 청동문화가 존재했다.¹⁷⁾ 이어지는 서주 시대에도 山西省의 일부 유적에서 북방식 청동기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중원 스타일이 주류를 이룬다.¹⁸⁾ 학자들은 춘추 중후기인 기원전 6세기 이후부터야 晉의 수도였던 侯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晉式이라는 혁신적 청동기가 제작되는 외중에 그리핀이나 사실주의를 비롯한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북방식 요소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본다.¹⁹⁾ 위에서 살펴본 李霧의 이해와도 부합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보다 더 이른 사례로 山西省 聞喜縣 上郭村묘지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주목한다. 1974년부터 발굴된 上郭村묘지는 기원전 745년부터 677년 동안 내전을 주도하며 晉의 군위 찬탈과 함께 결국 文公(기원전 636~628년 재위)의 패업을 이끈 曲沃 小宗의 묘지로 인식되고 있다. 上郭村의 발굴자들이 그 연

17) Emma Bunker 등, *Ancient Bronzes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From the Arthur M. Sackler Collection*, New York, The Arthur M. Sackler Foundation, 1997, pp. 22~25.

18)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148~149, 163~164쪽.

19) 田建文, 「侯馬上馬墓地M13, M2003出土的北方青銅器」, 『考古』 1993-2, 167~168쪽; Jenny So, *Eastern Zhou Ritual Bronzes from the Arthur M. Sackler Collections*, Vol. III, New York, Arthur M. Sackler Foundation, p. 58; 앞 책, *Art of the Houma Foundary*, pp. 14~17, 72~74.

대가 춘추 초기(기원전 8세기 후반~7세기 후반)까지 소급될 수 있는 북방 스타일 銅鑊과 帶鉤 등에 주목했듯이,²⁰⁾ 이 묘지에서 출토된 對流鼎이라고 부르는 주동이 달린 소형 청동 정 역시 초원문화의 영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上郭村 57호묘와 7호묘에서 각각 출토된 높이 6.3cm와 9.5cm의 대류정(그림 18)과 인근의 上馬墓地에서 발견된 6.5cm 대류정(그림 19) 뚜껑의 동물 장식은 유라시아 초원식 사실주의의 도입이 기존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세기는 빨랐음을 암시한다.²¹⁾ 上郭村에서는 대류정 이외에 다른 소형 청동기들도 출토되어 이들이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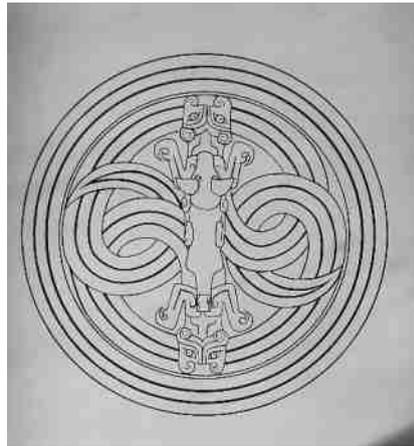
〈그림 18〉 상곽촌 대류정



〈그림 19〉 상마 대류정



〈그림 20〉 보리박물관 대류정



〈그림 21〉 보리박물관 대류정 뚜껑 장식

20) 山西省考古研究所, 「1976年聞喜上郭村周代墓葬清理記」, 『三晉考古』 1, 1994, 157쪽; 朱華, 「聞喜上郭村古墓群試掘」 『三晉考古』 1, 1994, 108쪽.

21) 상곽촌 청동기의 특징과 그 북방 초원시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324~339쪽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北京의 保利藝術博物館에 소장된 청동기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록에 虎首流鼎, 즉 “호랑이 머리 모양 주둥이가 있는 정”으로 명명된 이 청동기는 높이 11.6cm, 구경 11.2cm의 정교한 소형으로 上郭村에서 출토된 위의 기물들과 흡사하다(그림 20).²²⁾ 현재까지 이러한 청동기가 山西省 서남부의 聞喜와 侯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박물관의 기물 역시 춘추 초기에 쫓의 지역(특히 曲沃 小宗의 근거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임에 이견이 없다.

이 기물에서 필자는 그동안 별로 주목되지 않은 듯한 뚜껑 손잡이 동물(개?)의 양 옆구리에 명확히 앞으로 밀려 올라간 날개를 발견한다. 사자나 독수리가 기본인 알타이 양식과 달리 해당 지역에서 흔했을 동물에 날개가 달린 단순한 모습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뚜껑의 손잡이로 서 있는 동물 바로 아래 바닥 장식에서 나타난다. 서 있는 동물의 앞뒤에 대칭으로 호랑이 머리와 다리 두 개씩이 드러나고, 몸통의 양쪽으로 퍼진 날개가 장식되어 있다(그림 21). 이 기물 자체에 북방식 양식이 뚜렷하듯이, 두 동물 모두에 장식된 날개 역시 유라시아 초원이나 서아시아에서 성행하던 그리핀의 날개 모티프를 연상시킨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上馬에서 출토된 기물 뚜껑의 손잡이로 서 있는 동물 아래 바닥에도 같은 형식의 날개가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곽촌에서만 11점 발견된 소형 대류정을 세밀히 검토하면 유사한 장식을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그리핀을 비롯한 서아시아나 초원의 유목 양식이 山西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를 춘추 초인 기원전 7세기 이상으로 올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5~6년 陝西省 韓城 梁帶村的 춘추 초기(기원전 8세기경) 芮國 묘인 M26에서 출토된 소형 청동기들에서 상곽촌 출토 소형 청동기와 마찬가지로 북방 초원 요소를 읽어낸 제시카 로슨의 최근 연구와도 일치한다(그림 22).²³⁾ 그 기물 중 보고자가 圈足匜로 명명한 소형 기물은 굽다리를 제외하면 그 크기나 모양이 상곽촌의 대류정과 유사하며, 특히 기물 뚜껑 손잡이의 몸통에서 보리박물관 소장 虎首流鼎의 손잡이 동물과 유사한 날개 모양이 나타난다. 그 손잡이 동물이 人面獸身, 즉 사람과 동물의 합성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그림 23).²⁴⁾ 韓城은 黃河를 사이에 두고 山西省과 마주한 지역으로 聞喜에서 서쪽으로 130km 정도 거리이다.

이미 앞에서 하야시와 李霧이 중국에 나타나는 그리핀 요소의 연원으로 기원전 6세기까지 소급되는 알타이의 초원문화에 주목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알타이 파지리크 유적의 연대를 기원전 5~4세기 보고 있는 하야시가 중국에서 기원전 6세기에 나타나는 그리핀의 연원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고 하듯이,²⁵⁾ 연대가 더 올라가는 上郭村이나 그 인근에서 발견된 그리핀 요소로 인해 그 연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 요소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드물기는 해도 西周뿐만 아니라 商 후기인 기원전 12세기경까지 소급되는 유물이 존재한다. 李霧도 주목했듯이 1984년 陝西省 長安 張家坡에서 발견된 서주 중기(기원전 10~9세기)의 鄧仲犧尊은 神獸形의 특이한 기물이다. 양이나 사슴처럼 보이지만 다른 기형으

22) 保利藝術博物館, 『保利藏金(續): 保利藝術博物館精品選』, 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1, 164~169쪽.

23) Jessica Rawson, “Ordering the Exotic: Ritual Practices in the Late Western and Early Eastern Zhou,” *Artibus Asiae* 73.1, 2013, p. 16.

24) 孫秉君, 蔡慶良, 『芮國金玉選粹-陝西韓城春秋寶藏』, 西安, 三秦出版社, 2007, 244~245쪽.

25)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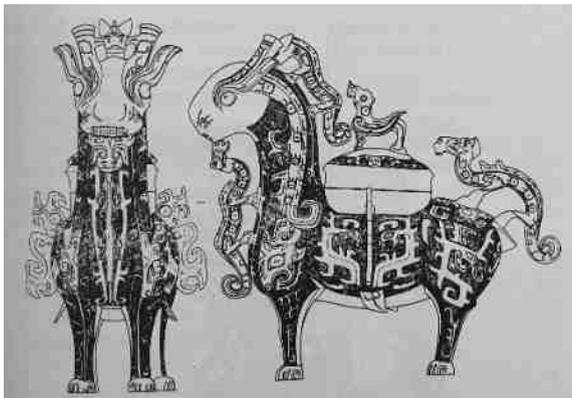
로 머리에 뿔 한 쌍과 귀 두 개가 솟아 있다. 몸통의 다양한 문양과 함께 머리 뒤쪽으로 꼬리가 말린 호랑이 한 마리, 가슴과 엉덩이 부분에 각각 뒤를 돌아보는 용 한 마리씩, 뚜껑 손잡이에 새 한 마리가 장식되어 있다(그림 24).²⁶⁾ 각주 26에 나온 이 기물에 대한 설명에는 몸체에 날개 한 쌍이 달려 있다고 하지만, 李零은 앞 다리 윗부분과 복부에서 두 쌍을 찾아낸다. 앞부분은 夔龍 자체가 날개 역할을 하지만 용의 머리 부분만 남겨져 있어서 실물을 보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렵고, 복부 아래에 鱗紋이 장식된 지느러미 모양 날개가 달려 있다. 다만 그 조형이 후대의 天祿이나 辟邪와 달라서 그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²⁷⁾



〈그림 22〉 양대촌 M26 출토 소형 청동기



〈그림 23〉 양대촌 圈足匝



〈그림 24〉 鄧仲犧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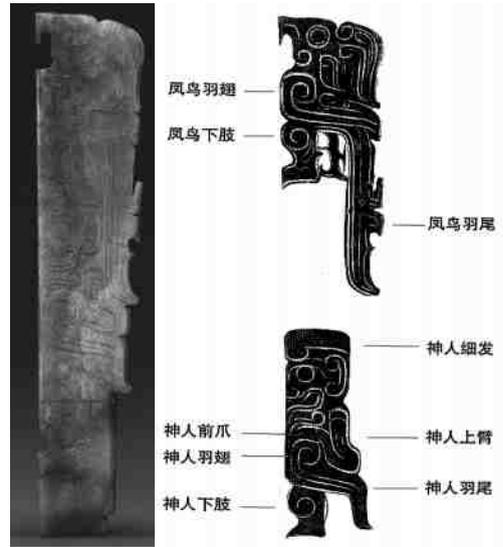
〈그림 25〉 양대촌 人面獸身 옥장식

26) 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青銅器全集 5』, 北京, 文物出版社, 1996, 158쪽, 圖版說明 50.

27) 李零, 「再論中國的有翼神獸」, 『入山與出塞』, 139쪽.



〈그림 26〉 양대촌 神人 옥장식



〈그림 27〉 양대촌 玉柄

현재까지 서주 청동기들 중 鄧仲羲尊 이외의 有翼神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陝西省 韓城 梁帶村의 芮國 묘지에서 출토된 옥기에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圈足匜의 뚜껑 손잡이 장식으로 나타난 人面獸身과 흡사한 날개가 표현된 서주 중후기의 人面獸身 옥장식이 주목을 끈다(그림 25),²⁸⁾ 더욱이 같은 묘지에서 출토된 서주 초중기(기원전 10세기)의 옥기 몇 점에서도 神人이라 명명된 형상의 하부에 날개 달린 형상이 나타난다(그림 26).²⁹⁾ 또 다른 玉柄 모양 기물에는 하부의 날개 달린 神人和 상부의 새가 결합한 특이한 양식도 출현한다(그림 27).³⁰⁾

이 옥기들을 소개한 저자들은 이와 유사한 기물로 두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山西省 天馬-曲村의 晉侯墓地 서주 후기(혹은 춘추 초기) 묘(M63)에서 나타나는 독수리 모양 옥기이다(그림 28).³¹⁾ 그 묘의 발굴자들은 옥기의 상부에 용이 합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묘에서 출토된 옥기 중 사슴 모양은 전형적인 북방식이다(그림 29). 모두 5점이 출토된 웅크린 人形도 梁帶村의 神人和 유사하지만(그림 30), 그 중앙의 장식이 날개를 표현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³²⁾

그 두 번째가 長江 중류의 江西省 新淦 大洋洲 상 후기(기원전 1200년경) 묘에서 출토된 側身翼人佩飾이라 명명된 옥기이다(그림 31).³³⁾ 머리에 새 모양 장식이 있는 이 의인화된 정교한 옥기에도 하부에 날개가

28) 孫秉君, 蔡慶良, 『芮國金玉選粹』, 158~159쪽.

29) 위 책, 74~75쪽.

30) 위 책, 76~77쪽.

31) 梁帶村에서도 독수리 모양 옥 장식이 두 점 출토되었다(위 책, 124~128쪽).

32) 山西省考古研究所 등, 「天馬-曲村遺址北趙晉侯墓地第四次發掘」, 『文物』1994-8, 16,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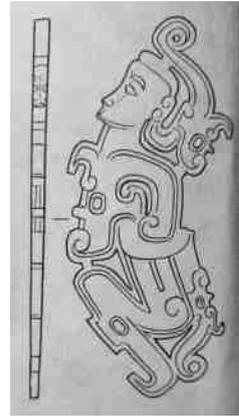
33)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등, 『新淦商代大墓』, 北京, 文物出版社, 1997, 158~159쪽.



〈그림 28〉 진후묘지 독수리 옥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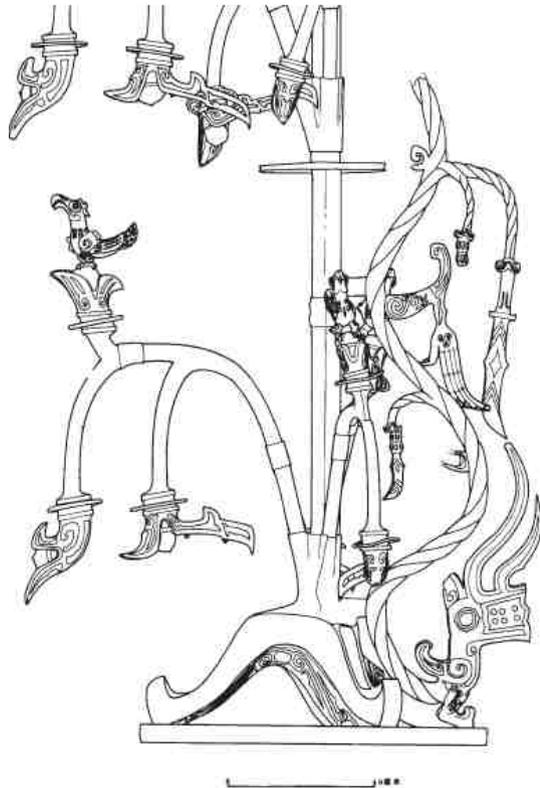
〈그림 29〉 사슴 옥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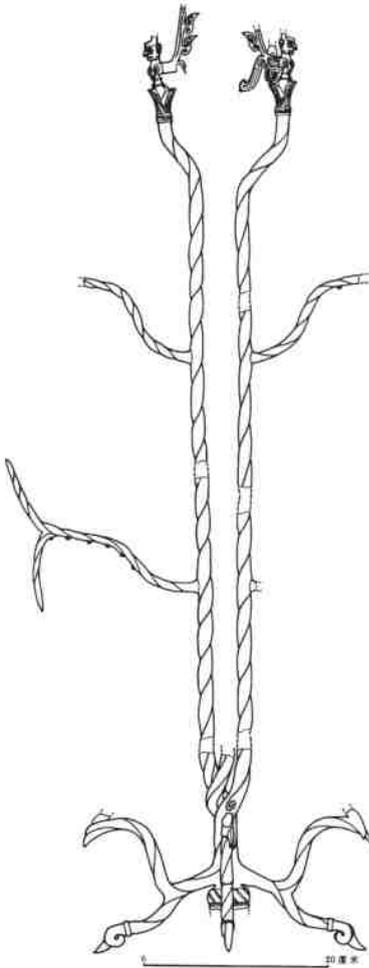
〈그림 30〉 人形 옥장식



〈그림 31〉 날개달린 옥패식



〈그림 32〉 삼성퇴 대형 神樹(높이 3.84m)



〈그림 33〉 人首鳥身이 달린 삼성퇴 소형 神樹



〈그림 34〉 삼성퇴 人首鳥身像



〈그림 36〉 청동冠人像



〈그림 35〉 청동종목가면

달려 있다. 梁帶村이나 晉侯墓地에서 발견된 玉人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코가 강조된 특이한 형상이다. 팔켄 하우젠은 이 모티프가 長江 상류와 인접한 四川省 成都 평원에서 유래했으리라 보는데, 같은 시기에 날개 달린 동물이나 인간과 새의 합성이 나타나는 유일한 지역이 三星堆이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형상은 神樹라는 기이한 기물에 표현되어 나타난다. 즉, 거대한 신수의 받침대에 표현된 날개 달린 용?(그림 32)과 작은 神樹

34) Lothar von Falkenhausen, "The External Connections of Sanxingdui,"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5.1-4, 2001, pp. 217~220.

의 끝장식으로 나타나는 새와 인간의 합성(그림 33) 역시 그러한 사례로 들고 있다. 또 다른 청동 나무에 달린 끝장식으로 추정되는 人首鳥身像을 추가할 수 있다(그림 34). 三星堆의 전형적인 人面에 새의 몸통과 날개가 합성된 모습이다.³⁵⁾ 三星堆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高大倫은 유명한 대형 突目 가면의 귀 부분을 새의 날개 형상으로 추정하고(그림 35), 관을 쓰고 있는 청동인상의 관 위에도 날개가 달려 있다고 본다(그림 36). 그것들을 “半人, 半鳥, 半神”의 복합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³⁶⁾

三星堆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물들의 모티프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팔켄하우젠은 중국의 후기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유사한 모티프는 당연히 그리핀이나 다른 날개 달린 동물이 성행했던 중앙 유라시아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기원전 12세기까지 소급되는 중앙 유라시아와 四川省의 교류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V. 시론적 해석

앞장에서 살펴본 기원전 6세기 이전 중국에 나타난 날개 달린 동물(인간)과 그 모티프의 연원 찾기는 고대문명 간의 교역과 교류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잘 보여준다. 특정 기물의 일차원적인 대비를 넘어서는 모티프라는 관념상의 교류 연구는 그 다양한 변이 가능성 때문이라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하려는 해석 역시 試論 이상일 수 없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과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비행기의 발명으로 현대인들의 그러한 본능이 퇴화하고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신이 사는 신성한 미지의 영역으로, 거기까지 다가서기 위한 매개자나 탈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날개 달린 동물이라는 공상을 최초로 도안으로 구현해낸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신들 주변에 존재하던 강한 동물인 사자나 독수리를 타고 신이 존재하는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을지도 모른다. 새의 날개를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적용한 그 꿈의 표현 방식은 다양한 변용과 함께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자료로 판단하기에 오늘날 중국에 기원전 12세기경 최초로 출현한 이른바 有翼神獸 혹은 神人은 서아시아에서 당시 존재한 양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국에서 기원전 6세기 이후에야 중앙 유라시아의 그리핀과 유사성을 지니는 유익신수가 출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선 이른 시기 유형의 토착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명 간 교류의 측면을 중시하며 다른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무엇보다 중국에 최초로 날개 달린 동물(인간)이 출현하는 시점이 이미 서아시아에서 그런 모티프가 출현한 지 2000년 이

35) 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青銅器全集 13』, 北京, 文物出版社, 1994, 40쪽, 圖版說明 11.

36) 高大倫, 『三星堆文明: 撥開迷霧下的故蜀故都』, 李零 等, 『了不起的文明現場: 跟着一線考古隊長穿越歷史』, 北京, 三聯書店, 2020, 116~117쪽.

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희랍어에서 최초로 gryps라고 명명된 날개 달린 동물 양식은 서아시아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동으로는 이란으로 서로는 이집트와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했다. 이미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중반까지 날개 달린 동물 주제는 세계 최고의 선진 문명 지역들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며,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소재의 인장과 장식품, 석조, 상아와 금속 용기, 벽화 등에 표현되었다. 비록 현재까지 확인된 이란 동쪽에 나타나는 그리핀 양식의 상한 연대가 기원전 6세기경이라 해도,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란 서쪽 도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된 날개 달린 동물이라는 관념이 어떤 식으로든 동방에도 알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37〉 우가리트 금제 사발 도상

특히 기원전 13세기경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그리핀 양식 중 시리아의 우가리트(오늘날 Ras Shamra) 고대 도시 유적의 바알(Baal) 신전 인근 건축에서 발견된 14세기 중엽의 금제 사발(17.5cm)에 표현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눈길을 끈다(그림 37). 상부의 정 중앙에 자리한 이른바 “생명의 나무(tree of life)”를 중심으로, 그 우측에는 사자 그리핀이, 좌측으로는 사람 얼굴을 지닌 날개 달린 그리핀(스핑크스)이 배치되어 있다. 스템크스 뒤에는 독수리 그리핀이 있다. 이 그릇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에게해, 키프로스, 시리아 등 여러 지역의 그리핀 요소가 혼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³⁷⁾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으로 향한 관문의 항구 도시였던 우가리트의 지리적 위치에 걸맞게 여러 지역 교류의 양상이 드러나는 일종의 종합세트처럼 보인다. 우가리트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의 동쪽 끝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기원전 13세기의 항아리에도 “생명의 나무”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독수리 그리핀이 서 있다. 그 반대편에도 스템크스 한 쌍이 “생명의 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 있다고 한다(그림 38).³⁸⁾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비슷한 시기의 인장에도 역시 “생명의 나무” 양쪽에 그리핀 두 마리가 마주하고 있다(그림 39).³⁹⁾

37)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57쪽.

38) 위 책, 58쪽;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image/36491001>(2020년 11월 15일 접속)



〈그림 38〉 키프로스 향아리



〈그림 39〉 키프로스 인장

기원전 13세기경 시리아와 키프로스 지역에 존재했던 “생명의 나무”와 함께 한 그리핀과 스팅크스의 모습에서 三星堆의 신수와 함께 나타나는 날개 달린 동물이나 人首鳥身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그러나 날개 달린 동물이나 사람과 함께 하는 “생명의 나무” 혹은 “신성한 나무(sacred tree)”로 불리는 이 주제 역시 기원전 네 번째 천년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출현하여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에 이집트나 그리스, 인더스 지역까지 포괄한 서아시아 문명권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양식이다. 그 나무는 특히 아시리아에서 인장이나 궁궐 벽의 부조로 빈번하게 나타날 정도로 성행하여, 그 의미를 둘러싸고 아시리아 예술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어왔다. 19세기 중반 이래 창세기의 생명수나 실제 야자나무, 사원의 신성한 나무 등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⁴⁰⁾ 이 주제는 동쪽으로도 전파되어 고대 이란의 신화와 원뿔형 술그릇인 리톤(Rhyton)에 나타나며(그림 40),⁴¹⁾ 흑해 남동쪽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기원전 13세기경 등장하여 9~6세기에 흥성한 우라르투(Urartu) 왕국에서도 성벽이나 투구 등 갑옷에 표현되었다(그림 41).⁴²⁾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그 전체 구성이 후대의 기독교나 유대교, 힌두교, 불교 미술에 나타나는 “생명의 나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⁴³⁾

三星堆에서 날개 달린 동물과 함께 하는 神樹가 제작된 기원전 12세기경, 아주 멀리 떨어진 미지의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성행해온 종교적 관념이 그 아이콘과 함께 긴 중계 과정을 거치며 成都 평원까지 희미하게라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삼성퇴인들이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형시켜 차용한 것과 달리, 당시 이미 특정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도철문⁴⁴⁾ 중심의 화려한 청동 문명을 꽃피운 상의 중심지에서는

39) 위 책, 59~60쪽.

40) Mariana Giovino, *The Assyrian Sacred Tree: A History of Interpretations*, Fribourg, Switzerland, Academic Press Fribourg, 2007, pp. 1~3.

41) Ezat O. Negahban, *Marlik: The Complete Excavation Report*, Volume 1 Text,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1996, pp. 75~77.

42) https://en.wikipedia.org/wiki/Art_of_Urartu(2020년 11월 18일 접속)

43) Simo Parpola,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3, 1993, p. 161.

44) 팔켄하우젠,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88~91쪽. 서방에서 그리핀이나 “생명의 나무” 모티프가 오랫동안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중국의 신석기시대 다양한 유적에서 그 원초적 양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다 상의 청동기에 정착하



〈그림 40〉 이란 마르리크(Marlik) 출토 리본에 장식된 “생명의 나무”(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 전반)



〈그림 41〉 우라르투 왕 사르두리(Sarduri) 2세(764~735 BC 재위)의 헬멧에 나타난 “생명의 나무”와 그리핀

그 외래적 요소를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35년 전에 林漢은 상 후기에 이른바 북방지대를 매개로 상의 중심지인 殷墟와 유라시아 초원 카라수크(Karasuk) 지역 사이의 상당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리라 추정했다.⁴⁵⁾ 童恩正이 제기한 “반월형문화전파대” 이론에 따르면 成都 평원 역시 북방이나 서북방으로부터의 영향을 수용하기 유리한 위치였을 것이다. 神樹를 비롯한 삼성퇴의 일부 유물과 『山海經』 등에 언급된 崑崙山 신화와의 연관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 역시 금속 제작 기술이나 마차처럼 서방 문명과 접촉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⁶⁾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중국에서 청동시대가 시작된 후 그 교류의 폭이 현재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루시아 피츠제럴드 후버는 중국 최초의 청동문화인 기원전 2000년경 甘肅省의 齊家文化와 남시베리아의 우랄산맥 서쪽 세이마-투르비노(Seima-Turbino) 지역의 금속을 사용한 유목 전사집단의 고고학적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라시아 초원 지역 청동기의 영향을 받은 齊家의 청동기가 陝西省의 客省莊文化를 거쳐 二里頭 청동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⁴⁷⁾ 梅建軍 역시 더 많은 증거로서 중국 서북 지역의 청동 제작에 유라시아 초원 지역의 영향이 뚜렷함을 강조한다.⁴⁸⁾ 더욱이 후버는 齊家/二里頭와 아프카니스탄/남투르크메니스탄의 박트리아-마르기아나(Bactrian Margiana)

여 西周 중기까지 성행한 도철 모티프를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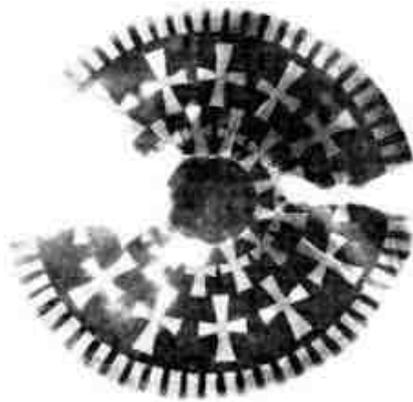
45) Lin Yun,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onzes of the Shang Culture and of the Northern Zone,” in *Studies of Shang Archaeology: Selected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hang Civilization*, ed. by K. C. Ch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p. 268-272.

46) 金秉駿, 「古代中國의 西方전래문물과 崑崙山 神話」,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5, 지식산업사, 2001, 127~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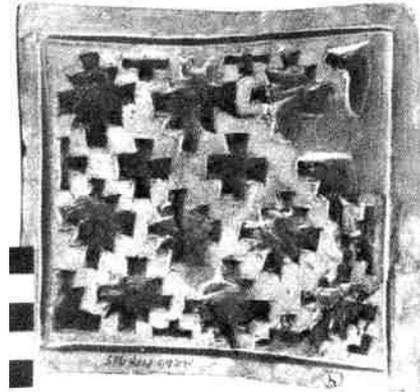
47) Lousia G. Fitzgerald-Huber, “Qijia and Erlitou: The Question of Contacts with Distant Cultures,” *Early China* 20, 1995, pp. 26~51.

48) Jianjun Mei, “Qijia and Seima-Turbino: The Question of Early Contacts between Northwestern China and the Eurasian Stepp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75, 2003, pp. 31~54.

와의 교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거울로 추정되는 금속 원반과 십자 및 별 모양 장식이 齊家와 二里頭에서 출토되었는데(그림 42), 이는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초반 박트리아에서 유행하던 양식이다(그림 43). 그는 二里頭 청동 觚와 爵 역시 박트리아(Shahdad, 이란 남쪽)에서 유사한 양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⁴⁹⁾



〈그림 42〉 이리두 청동거울의 십자 장식



〈그림 43〉 남투르크메니스탄 출토 陶質 박스의 십자 장식

따라서 후버는 그 전래의 중간 단계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二里頭 청동기가 세이마-투르비노와 박트리아 두 지역 목축 연맹 집단의 다른 궤적에 따른 영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본다. 중국 청동기시대의 시작 역시 세계적 차원의 교류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그는 중국에 나타난 이러한 접촉의 산물이 이미 고도로 발전한 중국 문명의 선택에 달려 있었으리라 강조한다.⁵⁰⁾

이와 같은 선구적 연구에 힘입어 청동기시대 중원과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사이의 교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제시카 로슨은 앞에서 언급한 陝西省 韓城의 梁帶村이나 山西省 晉侯墓地の 서주와 춘추 초기 무덤에, 이전의 상과 달리, 대량으로 부장된 구슬이 꿰어진 玉佩飾에 주목한다. 그 주 소재인 홍옥(carnelian)과 파이앙스(faience)가 원래 서아시아에서 유래하여 초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차용되다 河西回廊 지역을 통해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본다.⁵¹⁾ 앞에서 살펴본 梁帶村의 人面獸身 옥장식 역시 이러한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서주 중후기에 이르면 이러한 옥기 제작 기술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주 왕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원료 획득과 그 제조를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²⁾

중국의 고고학 발굴 역시 시야를 넓혀준다. 그 좋은 실례가 중국에서 수레의 기원일 것이다. 기원전 13세

49) Fitzgerald-Huber, "Qijia and Erlitou," pp. 52-59.

50) 위 글, pp. 66-67.

51) Rawson, "Ordering the Exotic," 62-64.

52) Peter Hommel & Margaret Sax, "Shifting materials: variability, homogeneity and change in the beaded ornaments of the Western Zhou," *Antiquity* 88, 2014, pp. 1213-1228.

기경 상 후기 묘에서 최초로 마차와 말이 출토되기 때문에 이때 유라시아 초원을 거쳐서 마차가 도입되었으리라 보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자료들은 중국 마차의 기원을 상 후기보다 올려볼 여지를 남겨준다. 二里頭 유적의 중앙 도로에서 수레바퀴의 흔적이 발견되었고,⁵³⁾ 2019년에는 河南省淮陽平糧臺의 신석기 후기 성벽 유적에서 더욱 뚜렷한 흔적이 나타났다. 성의 남문 부근 도로 여러 곳에서 너비 10~15cm의 바퀴 자국이 발견되었다. 흔적이 가장 깊은 것은 12cm 정도이고, 가장 뚜렷한 것은 길이가 3.3m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두 자국이 평행을 이루어 바퀴 간 거리가 0.8m에 달하는 쌍륜차가 당시에 이미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2200년 정도이다.⁵⁴⁾ 물론 상 후기보다 이른 시기의 마차 실물이나 말의 흔적 역시 아직 발굴되지 않아, 바퀴 흔적을 마차의 기원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바퀴가 平糧臺의 흔적보다 약 2000년 이전 메소포타미아나 유라시아 초원에서 발명된 점을 감안하면, 동서의 교류가 어떤 식으로든 기원전 세 번째 천년기 후반에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인류가 지속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온 가장 큰 동인은 아주 먼 과거나 현재까지도 선진 기술과 문화에 대한 수입 욕구일 것이다. 청동이라는 금속의 발명이 그 교류의 폭을 현저히 넓혀주었다.

20세기 후반 이래 무시무시한 고고학 발굴이 계속되는 중국에서 앞으로 어떤 유물이 새롭게 출토될지 모를 일이다. 고대문명 교류 연구가 자료나 방법론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이 밝은 이유다.

〈참고문헌〉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등, 『新金商代大墓』, 北京, 文物出版社, 1997.
- 桂娟, 李文哲, 「河南淮陽發現中國最早的車轍」, 中國社會科學網 『中國考古』 2020년 1월 14일.
- 高大倫, 「三星堆文明: 拔開迷霧下的故蜀故都」, 李零 등, 『了不起的文明現場: 跟着一線考古隊長穿越歷史』, 北京, 三聯書店, 2020.
- 金秉駿, 「古代中國의 西方전래문물과 崑崙山 神話」,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5, 지식산업사, 2001.
- 董恩正, 「試論我國從東北至西南的邊地半月形文化傳播帶」, 『中國西南民族考古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990.
- 로타 본 팔켄하우젠(저), 심재훈(역),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 세창출판사, 2011.
- 류리·천싱찬(저), 김정열(역),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리평(저), 이청규(역), 『중국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保利藝術博物館, 『保利藏金(續): 保利藝術博物館精品選』, 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1.
- 山西省考古研究所, 「1976年聞喜上郭村周代墓葬清理記」, 『三晉考古』 1, 1994.

53) 리평(저), 이청규(역), 『중국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67쪽.

54) 桂娟, 李文哲, 「河南淮陽發現中國最早的車轍」, 中國社會科學網 『中國考古』 2020년 1월 14일.

- 山西省考古研究所 등, 「天馬-曲村遺址北趙晉侯墓地第四次發掘」, 『文物』 1994-8.
- 孫秉君·蔡慶良, 『芮國金玉選粹-陝西韓城春秋寶藏』, 西安, 三秦出版社, 2007.
-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 李零, 「論中國的有翼神獸」, 『入山與出塞』, 北京, 文物出版社, 2004.
- 李零, 「再論中國的有翼神獸」, 『入山與出塞』.
- 李學勤, 『比較考古學隨筆』, 香港, 中華書局, 1991.
- 林俊雄, 『グリフィンの飛翔: 聖獸からみた文化交流』, 東京, 雄山閣, 2006.
- 田建文, 「侯馬上馬墓地M13, M2003出土的北方青銅器」, 『考古』 1993-2.
- 朱鳳瀚, 「漢代以前的北方與歐亞草原」, “東北亞青銅器比較研究”國際學術研討會, 日本 岩手大學, 2019년 12월 14~16일.
- 朱華, 「聞喜上郭村古墓群試掘」 『三晉考古』 1, 1994.
- 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青銅器全集 5』, 北京, 文物出版社, 1996.
- 中國青銅器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青銅器全集 13』, 北京, 文物出版社, 1994.
- 陳佩芬, 『夏商周青銅器研究: 上海博物館藏品』 東周篇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콘스탄틴 추구노프, 「투바 아르잔 2호 고분 발굴 성과」, 『중앙아시아연구』 21,2, 2016.
- N.V. 플로스막(저), 강인욱(역), 『알타이 초원의 기마인: 25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얼음공주와 미라전사들』, 주류성, 2016.
- Bunker, Emma 등, *Ancient Bronzes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From the Arthur M. Sackler Collection*, New York, The Arthur M. Sackler Foundation, 1997.
- Falkenhausen, Lothar von, “The External Connections of Sanxingdui,”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5, 1-4, 2001.
- Fitzgerald-Huber, Lousia G., “Qijia and Erlitou: The Question of Contacts with Distant Cultures,” *Early China* 20, 1995.
- Giovino, Mariana, *The Assyrian Sacred Tree: A History of Interpretations*, Fribourg, Switzerland, Academic Press Fribourg, 2007.
- Hayashi, Toshio, “Griffin Motif: From the West to East Asia via The Altai,” *Parthica* 14, 2012.
- Hommel, Peter & Sax, Margaret, “Shifting materials: variability, homogeneity and change in the beaded ornaments of the Western Zhou,” *Antiquity* 88, 2014.
- Institute of Archaeology of Shanxi Province, *Art of the Houma Founda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Lin Yun,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onzes of the Shang Culture and of the Northern Zone,” in *Studies of Shang Archaeology: Selected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 conference on Shang Civilization*, ed. by K. C. Ch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 Mei, Jianjun, “Qijia and Seima-Turbino: The Question of Early Contacts between Northwestern China and the Eurasian Steppe,”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75, 2003.
- Negahban, Ezat O., *Marlik: The Complete Excavation Report.*, Volume 1 Text,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1996.
- Parpola, Simo,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3, 1993.
- Rawson, Jessica, “Ordering the Exotic: Ritual Practices in the Late Western and Early Eastern Zhou,” *Artibus Asiae* 73.1, 2013.
- So, Jenny, *Eastern Zhou Ritual Bronzes from the Arthur M. Sackler Collections*, Vol. III, New York, Arthur M. Sackler Foundation, 1997.

* 이 논문은 2021년 2월 8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ivilization Marches East: Early Appearances of the Griffin Motif in China

Shim, Jae-hoon*

Griffin, an imaginary animal with wings, first appeared in Mesopotamia in about 3500 BC. Spreading throughout the entire West Asia and Europe, the motifs eventually reached East Asia as well via the oases of Central Asia and the Eurasian steppes. Scholars have noted their first appearance in China no earlier than the 6th century B.C. This study presents earlier cases of winged animals and humans, proposing that by the 12th century B.C. the griffin motifs already existed in China. On the one hand, the universal human desire to fly may have invented the motifs expressed in bronzes and jades indigenously. On the other hand, we must consider that before their first appearance in China the motifs were very popular in the most advanced regions including West Asia for more than two thousands year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acred trees or the so-called *shenshu* 神樹 unearthed together with the winged humans in Sanxingdui are also similar to the “Tree of Life” prevalent in the entire West Asia at that time. It would be better to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religious conceptions related to the griffin motifs might have vaguely spread to the Chengdu Plain through continuous chain of transmissions. Archaeology reveals interaction between the Qijia culture of the first Chinese bronze age in about 2000 B.C. and the Seima-Turbino culture in Southern Siberia. This further suggests earlier connections between the civilizations of the East and West.

[Keywords] griffin, sacred animals with wings, Tree of Life, sacred trees, interactions between East and West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